

시선

사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묵묵히 미래를 향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넓은 공간을 할애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 몇 년 전, 메인페이지 뉴스리스트 편집과 어뷰징 등 논란으로 인해 뉴스스탠드 형식으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최근 ‘드루킹 사태’ 등 여전히 포털사이트 뉴스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네이버는 뉴스로 성장했다. 인터넷의 초창기, 각종 포털사이트가 자사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무장하고자 했을 때 네이버가 택한 것이 뉴스였다. 독자들은 이 언론, 저 언론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뉴스를, ‘알קות’ 광고 없이 깨끗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택했다. 언론은 온라인화에 투입할 여력을 네이버에 아웃소싱했다. 윈-윈으로 보였던 그림은 네이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주필이 됐다.

기성언론의 지평이 이러한 가운데 대학주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았다. 여느 기성언론 못지않은 시간을 걸어왔고 누구 못지않은 족적을 남겼노라 자부한다. 대학주보가 가진 ‘최초’의 타이틀은 한둘이 아니다. 가로쓰기, 한글쓰기, 판형의 변화 등. 한때는 월간 발행의 매거진을 통해 종이 신문의 한계를 깨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하기도 했다.

온라인 시대는 가혹했다. 기성언론이 네이버에 종속되는 동안 대학주보는 어딘가에 종속될 수조차 없었다. 대학언론 중에선 가장 선제적으로 디지털화를 꾀했다. 적극적으로 SNS를 운영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춘 포맷을 시도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넘쳐나는 읽을거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는 각종 수치가 대변한다. 단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연례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가 그렇다. 올해 설문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대학주보’라는 이름이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안에서 볼 수 없으니 밖의 눈을 빌어 그것을 살피고자 했이었으나 ‘대학주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메일을 열고 대답해 준 구성원은 1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이미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이었다. 올해 초 시사인 대학언론상을 받으며 고무됐던 분위기는 마주한 현실 앞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스스로에게 냉정한 시선을 보내자면 익히 알고 있던 일이었다. 일부 화제가 된 기사가 아니라면 두 자릿수를 넘기 어려운 저조한 조회수, 이메일 뉴스레터의 저조한 개봉률 등 징후는 넘쳐났다. 본질적으로 아마추어인 대학기자들이 써낸 기사는 느렸고 정확하지 않은 때도 있었으며 세련되지 않은데다 학내 많은 목소리를 다 담아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래도 우리는 글을 쓴다. 개교 69주년과 창간 63주년을 맞은 이 1634호 역시 평상시의 대학주보라고 생각했다. 관행처럼 받아오던 축하와 각종 특집도 최대한 배제했다. 읽을거리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대학주보를 찾아주는 독자가 그래도 있음을 알기에, 좋은 기사를 쓰면 읽어주는 독자가 있음을 믿기에. 언론은 결국 생산해내는 뉴스로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글로써 지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여기에 약속한다.

대학은 지금

학생들 확대된 참여 권한 요구해

안나연 기자 na@khu.ac.kr

이번 달 내내 이어질 대학가 축제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전달됐다.(‘**캠퍼스 내 주류 판매 금지**’ **기습 공문에 대학가 당황/한국대학신문, 2018.05.09**) 이에 우리학교를 포함해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등이 축제 기간 내 부스에서 주류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해당 공문은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판매를 감행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인 제재로 이어지기에 다수의 대학은 해당 공문을 수용했다. 다만 축제를 길게는 2주, 짧게는 며칠 앞두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고려대에서는 지난달 8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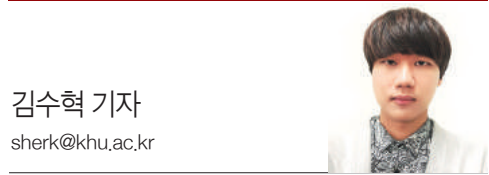
행복 기숙사, “우리 일은 아니라...”



이소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판돈으로 걸린 학생들의 주거안정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행복기숙사가 어느덧 캠퍼스의 익숙한 부분이 됐다. 천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에게 이곳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법적으로 여전히 ‘임시’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23일이면 지난해 내려진 행복기숙사에 대한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기숙사 사용승인 문제에는 기숙사생 보금자리의 법적 지위가 달려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합의는 고사하고 일 년 전의 협상 결렬 상태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황스러웠던 점은 이렇다 할 상황의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이었다. “관할 업무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저쪽에서 반응이 없다”같은 답변만 연이어 돌아왔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구청 입장에서 경희대교가 경희학원의 사유지로 판정났으니 공공도로 확보 문제는 경희학원과 그 산하 기관인 경희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경희대로 분쟁은 법인과 동대문구 사이의 일이고, 밀정히 지어진 기숙사의 사용허가 문제에 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구청의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법인과 학교의 입장이다. 사이에 끼어 있는 기숙사는 스스로 협상에 나설 수도 없으니 상위 기관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정말 구청과 법인, 대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뿐이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상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져도, 스스로의 주장을 일부라도 굽히는 것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과가 없이 헤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주거는 안정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다. 학생들이 삶의 기반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로 온전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배신감을 느끼는 지점은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관계기관들의 태도에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시민이 납세를 하고 학생이 등록금을 낼 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보다 나은 답변을 기대했을 것이다.

논의의 주체들이 모여 앉아 목을 꼿꼿이 세우고 “뭇 먹어도 고”를 외치고 있을 때 판돈으로 올라간 것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이다.

의(전학대회)를 통해 총장 선출의 민주적 과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중집위 인준부터 총장선출 결의안까지/고대신문, 2018.05.09**) 기존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중심이 아닌, 학생의 표결영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학본부와 법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학대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제50대 서울총학생회는 올해 12월에 예정된 총장선출에 대비하기 위해 총장선거 TF를 구성했다. 총장선거 TF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 포함하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됐다.

홍익대 역시 지난 3일 진행된 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시행 촉구안이 가결됐다.(**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 열려/홍대신문, 2018.05.08**) 학교 운영에 있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총학생회는 “학교가 안전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오는 2학기에 농성 진행, 국민탄핵 등을 포함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적립금의 개선과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거리행진이 진행됐다.

숙명여대 백경일 법학부 교수가 강의 도중 성차별

발언을 일삼아 법과대학 학생회는 본부에 ‘교원 징계 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교단에서 행해진 성차별, 징계 요구의 목소리 커져/속대신보, 2018.05.07**) 이어 ‘교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백 교수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강의 중 성차별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잔인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수업자료를 배포해 다수의 수강생이 불편함을 느꼈다. 백 교수는 지난 3일 간담회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학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에서는 지난달 2일 무용과 탈의실과 체육관에 여장남자가 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엔 여장남자 탈의실 난입...커지는 불안감/이대학보, 2018.05.07**) 이화여대는 교내 건물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총무처 총무팀에 의하면 한 달 평균 45건의 외부인 난입 신고가 접수된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예민함이 커진 만큼 학생으로부터 외부인 출입을 강하게 제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총무팀은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변화의 성공은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언론의 위기다.’ 언론사들이 비명을 외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 있다. SBS 뉴미디어 자회사인 ‘스브스 뉴스’다.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살아남기 힘든 유튜브에서 언론매체의 10만 구독자 달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너도나도 뉴미디어를 외치던 2016년, SBS는 기존 보도국을 보도국, 뉴스제작국, 뉴미디어국으로 개편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사 또한 ‘온라인 퍼스트’를 지향했지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SBS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기존 방식을 탈피한 효과는 결과로 나타났다. 뉴스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던 10대 독자가 지 잡았으니, 말 다한 셈이다.

‘대학의 위기다.’ 26만 명에 달하는 학령인구 감소는 피해갈 수 없으며, 4차 산업 혁명 도래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교육 노하우에도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연적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5년 안에 가시적인 위기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시급한 변화를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학교도 다가오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피해갈 수 없다.

그간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해왔던 것은 대학본부다. 융합인재를 원하는 시대상에 맞춰 ‘융합전공’을 도입했다. 작년 신설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다변화하는 미래 산업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진정 미래에 대한 참된 고민에서 나온 해답인지는 의문이다. 융합전공의 배경에는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가 있었으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또한 시작은 프라임 사업이었다.

위기를 타파하려면 이런 산발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으로 우리학교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많은 외부 평가에 비취진 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각종 사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문제점과 마주해야 한다.

프라임 사업 실패 원인을 단순히 ‘소통’ 부족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았는지, 계획을 어떻게 적용할지 철저한 고민이 필요했다. 2014년, 전에 없던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발표한 ‘대학 행정 및 재정발전 계획안’도 마찬가지다.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변화한 환경에 맞맞는 전략인지 고민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고민의 시작이며, 새로운 변화의 초석이다.

SBS가 뉴미디어국을 신설했을 때, 어떤 언론이 뉴미디어 시대가 올 것을 몰랐겠는가. 떨어지는 신문 판매부수, 바닥을 치는 언론의 신뢰도 등 치열한 자기반성의 계기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마주하지 않았다. 변화를 일으키자니 그간 쌓아온 것을 잃기는 싫다고 생각했으리라. 그 찰나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은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운전대를 넘겨주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더 많은 것을 잃은 셈이다.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